

# 교수협의회 건의사항에 대한 교무처 의견

수신: 단국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발신: 단국대학교 교무처 교무처장

우리 부서에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오니, 교수협의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공통 건의 사항

(1-1) 61세 이후의 연구업적 기준이 50점에서 150으로 세배나 증가한 것은 너무 과도한 부담입니다. 기존 기준으로 환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다수 건의)

▷ 교수직급 트랙제 도입으로 인해 교육트랙으로 선택하는 경우 0~60점으로 감소되며, 봉사업적 30점 초과분에서 최대 30점까지는 교내봉사에 대하여 연구업적으로 대체가 가능함 (제 1안).

▷ 호봉승급심사 2회 탈락 교원에게도 트랙제의 교육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 (제 1안).

▷ 인문, 사회, 체육 계열은 한국연구재단후보지 및 저서 (학술서에 한함)를 연간 100점 인정 (제 1안).

▷ 승진대상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변경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 1안).

▷ 자연계열에서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를 인정하므로, 특별히 과도한 부담이라고 볼 수 없음 (제 1안).

▷ 기존 연구업적 연평균 50점에서 100점으로 조정 (제 2안).

▷ 트랙제 적용 폐지 (제 2안).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100% 적용 (제 2안).

(1-2) 봉사점수는 교내활동만이 아니라 교외활동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 봉사업적의 기본 봉사점수 30점까지는 교외봉사로 가능하며, 연구업적 대체로 인정하고자 하는 봉사업적은 기본 봉사점수 30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교내봉사만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임.

▷ 봉사업적을 연구업적으로 대체 인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교내봉사 활성화를 통한 학교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임.

(1-3) 학술대회 사회자의 봉사업적은 반영하면서 발표자의 업적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임. 따라서 학술대회 발표도 연구업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봉사업적으로 인정 예정.

▷ 호봉승급심사에서 봉사업적 30점을 초과하는 점수에 대해서는 교내봉사의 경우 최대 3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

▷ 학술대회 발표에 대한 업적은 반영해오지 않은 실적임.

(1-4) 저서의 업적기준을 상향할 것을 건의함. 특히, 인문학의 경우 저서의 연구업적 기준이 500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외에도 번역서, 사전, 주석 교열본 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고 있음. (다수건의)

▷ 현행 승진(재임용) 심사 대상자는 저서 (학술서에 한함)를 연간 100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편안에서는 연간 120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교수직급의 호봉승급 심사에서도 연간 최대 70점에서 100점으로 조정 예정임.

▷저서 실적 (번역서, 사전, 주석, 교열본 등) 인정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예정임.

(1-5) 연구년 선발기준과 관련하여 연구비 신청과 함께 획득의 성과를 더욱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연구비 수주 실적은 산학협력단의 자료를 활용하여 반영함 예정임.

▷ 1017학년도부터 연구년 선정은 각 단과대학에서 선발 예정.

(1-6) 교내 위원회 참석 점수를 부여하려면 위원회 모집 공고를 거쳐서 모든 교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직교수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임.

(1-7) 새로운 평가기준 제안시 교수들에 대한 회람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2015학년도 교원업적평가기준 변경(안)에 대하여 합동교무위원회의, 전체학과장회의, 전체교원연수회(2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가 이루어졌으며, 추후 조정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안내 및 홍보 방법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사범대학 건의 사항

(2-1) 과학, 수학 교과교육은 (업적기준과 상관없이) 사회계열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무처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 기존에는 과학교육 및 수학교육과의 계열구분은 학과 소속의 계열인 자연계열로 구분하였음.

(2-2) 다음의 문의사항에 대한 교무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 계열별 가중치 설정 기준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대학 사례에 따른 가중치 반영이라면 그 대학명과 전공학과의 업적 현황을 세부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열별 가중치 설정은 최근 3년간 교나 전임교원 연구실적 DB 및 한국연구재단 DB를 활용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 DB에서 개인별 논문편수는 인문계열 6.55, 체육계열 7.94의 수치를 보임.

- ② 계열분류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교육과의 경우 수학교육전공 교수님들은 인문계열로 분리되어 적용을 받고, 수학교육 전공이 아닌 교수님들은 자연계열로 적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 학과소속 계열로 구분함으로써 개인별 전공에 대한 계열이 반영되지 않아 형평이 맞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학 및 수학 전공교원은 자연계열로 구분하고, 교육학 전공교원은 인문 (사회,수학) 계열로 구분하고 있음.
  - ▷ 자연과학대학 수학과는 자연계열(다군)로 적용하고 있음.
- ③ 가중치 적용은 언제까지 지속하고, 상한선은 어디까지 인지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가중치가 상향 조정된 계열은 타 계열에 비하여 논문게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며, 한국연구재단 DB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인문대비 체육계열의 논문 게재수가 약 20% 높게 나타남.
- ④ 다른 대학이 업적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⑤ 최근 3년간 교내 전임교원 연구실적 DB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하셨다고 하는데, 논문을 다른 계열에 비해 다수 게재한 계열에게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연구업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 ⑥ 신규 임용자에 대한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 연구 업적기준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동기 부여가 어렵습니다. 개정안에서 제시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체육 계열의 경우, 정년 보장을 위해 충족해야 될 연구 업적기준은 6년간 총 3,300점에 달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면직 처리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6년 동안 매년 최소 550점을 충족해야 한다는 산술 결과입니다.
  - ▷ 2015년 1학기 신규임용 교원부터는 정년보장 심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정년보장 심사에서 요구하는 연구업적 점수는 양적기준과 질적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정년보장을 받게 되어 있으며, 요구조건에서 80% 이상을 충족할 경우 2년간의 조건부 재임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정년보장 심사기준으로서는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⑦ 정년보장심사 연구 업적 중, 분야별 IF 상위 50% 이내는 체육계열의 경우, 체육계열 내에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이 함께 평가되고 있어서 인문계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계열 내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계열의 IF 상위 50% 이내의 논문 목록을 문서화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IF 상위 50% 이내 목록은 외부기관에 구매를 신청한 상태이며, 자료제공을 받으면, 공지할 예정임.
- ⑧ 체육계열은 승진 및 정년보장심사에서 SSCI급 논문 이외에도 SCI와 SCIE급 논문들도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 체육계열의 국제학술지 (SSIC, SCI, SCIE)는 기존에도 인정하고 있음.
- ⑨ 각 계열 별로 같은 등급 논문이라도 다르게 점수가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를 들어서, 다른 계열(공대 등)과 달리 체육계열에서는 Scopus급 논문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도 SCI, SSCI, SCIE급 논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일괄적으로 Scopus급 논문을 모든 계열에 150점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계열별로 점수배정을 다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 ▷ IF는 전공분야가 같은 인문계열이라고 해도 다양한 분야로 나뉘져 있으므로 별도 계열 분리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분석됨.
- ▷ Scopus 논문은 현재 단독기준 75점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편안에서 150점으로 상향 조정 예정이며 추가 확대여부는 검토 예정임.

### 3. 공과대학 건의 사항

(3-1) 현재 자연/공학계열의 연구업적 평가 기준을 보면, Science/Nature/Cell은 1000점, SCI/SCIE는 3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점과 1000점 사이에 다른 기준이 좀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상위 5% 이내는 800점, 상위 10% 이내는 700점, 상위 15% 이내는 500점, 나머지는 300점 정도로 분류를 한다면, 좋은 논문에 쏟았던 긴 노력과 시간을 그나마 연구업적으로 보상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무처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 ▷ 질적 평가기준 점진적 확대 적용 검토.

### 4. 법과대학 건의 사항

(4-1) 변경된 업적기준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음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해야지 기존의 계약진행 중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무처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 ▷ 신규임용 계약서상에 교원인사기준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용받는 조항이 있음.

### 5. 자연과학대학 건의 사항

(5-1) 식품영양학과가 '가'그룹으로 분류된 기준은 무엇인지요? 교무처에서 적용한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 ▷ 교원업적 심의위원회에서 자연계열 세부그룹은 의견수렴 및 제반 자료를 참고하여 확정하였음.

### 6. 국제학부 건의 사항

(6-1) 컴퓨터 분야는 저널과 함께 국제 학술대회 영향력이 상당하여 교육부의 BK21+ 사업의 평가 기준에도 반영되는 등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분야의 저명 국제학회의 위상은 SCI 저널 출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컴퓨터 분야에서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직접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소가 학술대회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학회(학술대회 발표실적) 논문실적을 인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교무처의 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 봉사업적으로 인정 고려.
- ▷ 호봉승급에서 봉사업적 30점을 초과하는 점수에 대해서는 교내봉사의 경우 최대 3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 예정.
- ▷ 학술대회 발표에 대한 업적은 반영해 오지 않은 실적임.

## 7. 의과대학 건의 사항

(7-1) 의예과 교수들은 특성상 책임시수 9시간을 배정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을 업적기준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9시간을 강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거나 책임시수와 연구업적을 연계하는 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교무처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 의예 및 치의예과는 트랙제 도입으로 책임시간 또는 연구업적 요구점수의 조정이 가능하며, 책임시간에 대해서는 자연계열 기초과목에서도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8) 교양교육대학 건의 사항

(8-1) 등재후보지의 업적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어국문학계의 경우는 등재지와 등재후보지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등재후보지 인정 여부에 대한 교무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는 61세 이상 교원의 호봉승급심사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승진 및 재임용 심사에서는 예능 및 임상교원에게만 적용함.
- ▷ 인문, 사회 및 체육계열에서 60세 이하 교수직급과 승진 및 재임용에는 적용하지 않음.

## 9) 융합기술대학 건의 사항

(9-1) 연구실적 대체인정 기준(2013.3.1.부터) 관련해서 ① 현재 공공기관 수탁연구 과제수주실적에 대한 대체인정 : ▶ 간접비 250만원당 15점 (연간 최대 275점 다만, 자연계열 '가' 그룹은 325점까지 인정), ② 현재 산업체 수탁연구 과제수주실적에 대한 대체인정 : ▶ 1건당 1천만원 이상 : 75점(연간 최대 75점까지 인정) 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①, ②간에 차이가 많습니다. 산업체과제를 아무리 많이 수주해도 연간 75점입니다. 산업체 과제 수주도 매우 어려우니 이와 같은 차별을 없애고 ①과 같은 조건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교무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 2016학년도부터 연간 최대 75점에서 연평균 75점으로 확대적용 예정이며,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간접비 기준과 동일 적용 문제는 검토가 필요함. ☞